

가톨릭敎會內 言論團體現況 및 組織

吳 世 完
(神父, 가톨릭 매스콤委員會 總務)

목 차

- I. 국제 가톨릭 방송인협회
- II. 국제 가톨릭인 신문출판인협회
- III. 국제 가톨릭 영상인협회

가톨릭교회내의 언론단체로서 교황청의 인준을 받은 공식 기구는 1927~1928년 사이에 유럽에서 창설된 방송인협회(UNDA), 신문출판인협회(UCIP), 영상인협회(OCIC) 등 현재까지 세 가지가 있다. 이들 언론단체들의 간단한 역사와 조직을 살펴본 후에 국내단체들의 현황을 소개하겠다.

I. 국제 가톨릭 방송인협회(UNDA/world)

1. 개관

방송은 이제 세계적인 차원에서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은 물론이고 종교 분야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가톨릭 교회는 일찍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대해 가톨릭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27년 UNDA/world, 즉 국제 가톨릭 방

송인협회(공식명칭 : The International Catholic Association for Radio and Television)를 창설하였다. 'UNDA'란 'wave', 즉 파도를 뜻하는 라틴어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전파를 상징한다.

교황청에 의해 공식 인가된 유일한 세계적인 가톨릭 방송인 연합체인 UNDA는 라디오, 텔레비전의 방송 전문직에 종사하는 가톨릭 평신도들 간의 상호협력과 사도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전파와 인간개발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UNDA/world는 산하조직으로 국가별 가톨릭 방송인협회(NAS : National Association)와 UNDA 대륙그룹(CGS : Conntinental Groups)을 두고 있으며 각종 워크숍, 회의 개최, 정보교환 및 연구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UNDA에 가입한 국가별 방송인협회는 12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대륙그룹도 6개 대륙에 조직되어 있다.

2. UNDA/world 산하 각 대륙의 UNDA그룹

UNDA/Asia, UNDA/Europe, UNDA/America, UNDA /Latin-America, UNDA/Africa, UNDA/Oceania가 있으며, 각 대륙에는 국가별로 UNDA협회가 조직되어 있다. UNDA/Asia 산하에는 UNDA/Korea, UNDA/Hongkong, UNDA/India, UNDA/Indonesia, UNDA/Malaysia, UNDA/Philippines, UNDA/Thailand, UNDA/Taiwan, UNDA/Lebanon, UNDA/Japan, UNDA/Burma, UNDA/Macau 등의 각국협회가 조직되어 있다.

3. UNDA의 특징

UNDA는 산하조직 특히 국가별 가톨릭 방송인협회에 가입한 회원의 구성 및 역할에 있어서 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에 의한 창의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나 대륙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사도직 수행을 위한 공동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고 있다.

4. UNDA와 교회와의 관계

- 1) UNDA정관에 대한 교황청의 비준.
- 2) UNDA회장은 교황청 매스콤위원회(PontCom/MSC)의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
- 3) 교황이 지명한 고위 성직자가 교황보좌역(Ecclesiastical Assistant)으로서 UNDA에 참여.
- 4) 각 나라에 조직되어 있는 UNDA협회는 주교회의 산하 전국 가톨릭 매스콤위원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자치적으로 운영. UNDA협회장은 매스콤위원회의 당연직 이사임.

5. UNDA/world의 목적

UNDA는 방송이라는 전문직업에 대한 사도직 정신의 발현으로 방송내용의 탁월성과 책임을 프로그램 제작방향에서 확인하고, 특히 방송내용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취입하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복음전파와 인간개발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UNDA는 특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 1) 선교사업이나 인간발전을 위한 라디오, 텔레비전 및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있어서의 가톨릭 활동을 지원한다.
- 2) 국가적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연구, 회의, 출판, 정보교환, 도큐먼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회원과 조직간의 협력을 추진한다.
- 3) UNDA와 같은 목적을 지닌 타국제조직과 공식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접촉하여 국제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 4) 인재교육 및 제3세계에 대한 재정적 원조를 조정, 알선한다.
- 5) 라디오나 텔레비전 및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조사연구를 고취한다.
- 6) 기타 국제 가톨릭단체(예 : OCIC, UCIP) 및 UNDA와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가톨릭 조직들과 협력한다.

* 한국 가톨릭 방송인협회(UNDA/Korea)

1. 개관

UNDA/world의 국가별 조직인 UNDA/Korea는 주교회의 산하 전국 가톨릭 매스컴위원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각 교구별로 UNDA 교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UNDA/Korea의 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비롯한 유·무선 방송매체 분야에 종사하는 가톨릭 신자나 사제, 수도자 및 사도직 종사자를 망라한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으로 구성된다. 단체회원의 범주에는 교구, 가톨릭계 대학과 신문방송학과가 있는 대학, 방송국, 기타 대의원 총회가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 포함된다.

정기 대의원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UNDA/Korea는 회장단, 교구대표회원 4인, 매스컴위원회가 추천하는 회원 1인, 방송국 대표회원 1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연혁

1971. 4명의 외국인 사제를 주축으로 한 UNDA/Korea 창설 및 회칙제정. 동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UNDA/Asia에 대표 파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센터, 가톨릭 매스컴위원회, 광주대교구 매스컴위원회 및 원주교구 매스컴위원회 등이 단체회원으로 가입. 초대회장에 예수회 소속 존 미첼 신부, 부회장에 콜롬반회 콜롬 버피 신부, 총무에 메리놀회 레이몬드 설리반 신부, 감사에 콜롬반회 안토니 모텔 신부를 각각 선임. MBC-Radio 전국 방송용 '5분 묵상' 프로그램 제작 및 UNDA지원금에 의한 KBS-TV 방영용 30분짜리 프로그램 제작.

1972. 1. UNDA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한국 천주교 주교단을 위

한 매스컴 워크숍 주관.

1973. UNDA본부 지원으로 각 교구 매스컴 담당사제들을 위한 워크숍 개최. 서울대교구, 춘천, 대전, 청주, 전주, 안동, 부산, 마산, 제주교구 및 가톨릭 저널리스트 클럽 등 추가 신규회원 가입.

1975. 김몽은 신부, UNDA/Korea회장 취임(1982년까지 역임).

1977. 콜름 머피 신부, 김종국 신부, 설리반 신부, 최창섭 교수 및 김영숙 수녀 등이 벨기에 나무르에서 개최된 UNDA/world총회에 참석.

1982. 3. 김병철 신부, UNDA/Korea회장 취임. 동년 인도 마드라스에서 개최된 UNDA/Asia회의에 김병철 신부, 커스턴 신부, 나궁렬 신부 및 최창섭 교수 참석.

1983. 김병철 신부와 나궁렬 신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UNDA/world에 참석.

1971-1986년까지의 기간 동안 UNDA/world로부터의 원조금은 주로 지방교구청의 선교방송사업, 방송인 피정 및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센터 등에 사용되었음.

1987. 6. 교구, 現業 및 학계 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적극 유도할 목적으로 종전의 회칙을 보완, 새로운 회칙개정.

1987. 11. 대의원 총회에서 UNDA/Korea 회칙채택. UNDA/Korea의 발전적 확대개편 단행. 새 회칙에 의해 회장에 정치운 신부, 제1부회장에 김영복, 제2부회장에 케빈 커스턴 신부, 총무에 김성호씨가 선출됨.

1988. 1. 25. KBS 교우회, UNDA/Korea에 단체회원으로 가입.

1988. 4. 4. MBC 교우회, UNDA/Korea에 단체회원으로 가입.

1989. 12. 제1회 가톨릭 방송인 전국대회를 한마음 수련장에서 개최, 약 200여 방송인 참석. 이를 계기로 해마다 장소를 바꾸어 가며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제2회 : 한마음 수련장. 제3회 : 서강대학교.

1992. 11. 제4회 한국가톨릭 방송인 대회 및 제5회 가톨릭 방송상 시상식을 부산 성 분도 명상의 집에서 거행. 방송대상 : 8·15특집 다

큐멘터리 '조용한 대지'(박정옥 PD), 우수상 : 순교자성월 특집 '박해의 불길 속에서'(박찬민 PD), 격려상 : 다큐멘터리 '들꽃마을 사람들'(유상우 PD).

1993. 11. 제5회 한국가톨릭 방송인 대회 및 제6회 가톨릭 방송상 시상식을 대전 가톨릭 교육회관에서 거행. 방송대상 : 제주 송년기획 다큐멘터리 '사랑의 사제 맥그린치'(김태운 PD), 우수상 : (르쵸) 작은 사람 큰 이야기 '부름의 소리들'(이정은 PD).

3. UNDA/Korea의 조직

UNDA/Korea에는 회장 1명, 국내담당 제1부회장과 국제담당 제2부회장 및 총무 1명 등 모두 4명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재정,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의 감사 외에 임원 및 교구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10인 운영위원회를 두어 본회의 각종 중요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UNDA/Korea에는 가입 단체 및 소속 본회의 대표성의 공정화를 기하기 위해 대의원 대표제를 도입하여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임원과 운영위원 선출 및 회칙개정 등 중요 업무를 최종심의하여 결정한다.

4. 주요회칙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천주교방송인협회(UNDA/Korea)라 칭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1항-5항까지는 UNDA/world의 목적과 동일함.

시청취자로 하여금 방송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갖도록 도우며 방송매체의 역기능을 제거하고 순기능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식별력을 개발시키고자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비롯한 유선방송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매체 분야에 종사하는 가톨릭 신자나 사제, 수도자 그리고 사도직 종사자로서 임회원서를 제출하는 기관의 구성원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총무 1명

제9조(감사) 감사는 2명으로 하며 재정감사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대의원 총회

제13조(대의원 총회의 기능) 대의원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과 운영위원 선출
- (2) 사업계획의 인준
- (3) 재정보고의 인준
- (4) 회칙 개정
- (5) 회비 책정
- (6) 활동보고 청취
- (7) 기타 주요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임원, 교구대표회원 4인, 매스콤위원회가 추천하는 회원 1인, 방송국대표 회원 1인으로 하되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서 의결 및 위임된 사항
- (3) 총무 감사 선정에 관한 사항
- (4)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사항
- (5)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제6장 교구위원회 및 분회

제22조(교구위원회 구성) 교구 UNDA위원회는 각 교구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제23조(분회의 구성) 각 단체 및 기관의 UNDA회원은 분회에 가입해야 한다.

제24조(교구위원회 및 분회의 기능)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해 각 교구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그리고 분회는 해당 단체 및 직장 안에서 업무를 추진한다.

※ 회원사 인원 현황(91년 자료 참조)

KBS : 183명

MBC : 324명(서울, 연합, 강릉, 대구, 대전, 진주, 충주, 마산, 목포, 부산, 삼척, 안동, 청주, 포항, 여수, 울산, 원주, 전주, 제주, 춘천, 광주 포함)

PBC : 110명

CBS : 1명

II. 국제 가톨릭인 신문출판인협회(UCIP/world : International Catholic Union of the Press)

1. 개관

국제 가톨릭 신문출판인협회(UCIP)는 교황청이 인준한 국제적인

가톨릭 기구로서, 신문출판 분야 가톨릭인들의 전문적인 자율단체이다. UCIP는 국제적인 신문출판 분야의 가톨릭 활동을 증진하고 조정하며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1927년에 창립된 UCIP는 사회홍보 분야의 3개 국제 가톨릭단체 중의 하나이다. UCIP는 또한 민간단체로서 국제연합(UN) 경제사회 이사회(ECOSOC)와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의 국제기구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2. 연혁

UCIP는 1927년에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가톨릭 언론인들에 의해 국제사무소가 창설되었으며, 이듬해인 1928년 독일 쾰른에서 가톨릭 신문 및 출판관계 대표들이 모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UCIP의 기틀을 확립하기 시작했다.

1930년 브뤼셀에서 제1차 세계대회를 갖고 세계적인 조직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1936년 로마에서 국제적인 가톨릭 신문출판인협회(UCIP/world)를 출범시켰다. 1966년 현재와 같이 UCIP로 개칭한 이후 신문출판계에 종사하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였다.

3. 목적과 활동

UCIP는 활자매체인 신문출판 분야에서의 사도직 실천을 통하여 특히 이들 활자매체의 내용에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주입하여 복음화와 인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UCIP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1) 복음화와 인간발전을 위해 신문출판 분야에서의 가톨릭 활동을 증진한다.

2) 국가적 또는 국제적 차원의 연구, 회의, 출판, 정보교환 등을 통해 회원이나 국제사회의 공동선에 이바지한다.

3) 인재양성 및 제3세계에 대한 교육적, 재정적 원조를 조정, 알선한다.

4) OCIC 또는 UNDA와 같은 여타 국제 가톨릭단체들이나 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가톨릭단체들과의 협력을 증진한다.

이 밖에도 UCIP는 청년 언론인들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본부 사무국의 주관하에 ‘하계대학’(summer university)을 개최하고 있다. 세계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열리는 이 하계대학의 목적은 모든 대륙에 사는 회원들 간의 협력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각 대륙의 문화, 사회, 역사, 경제, 정치, 종교적 배경에 대한 재발견과 이해를 도모하는 데 있다.

3. 조직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UCIP는 현재 전세계 90여 개국의 가톨릭 신문출판인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6개의 지역 회의와 6개의 분야별 국제 연맹으로 조직되어 있다.

1) 지역회의

- (1) 동아시아 가톨릭 신문출판인협회(EACPA)
- (2) 동남 아시아 가톨릭 신문출판인협회(SEACPA)
- (3) 남아시아 가톨릭 신문출판인협회(SACPA)
- (4) 라틴 아메리카 가톨릭 신문출판인협회(LACUP)
- (5) 북미주 가톨릭 신문출판인협회(NACUP)
- (6) 유럽 가톨릭 신문출판인협회(ECUP)

2) 국제연맹

- (1) 국제 가톨릭 언론인연맹(IFCJ)
- (2) 국제 가톨릭 일간지연맹(IFD)
- (3) 국제 가톨릭 정기간행물연맹(IFP)
- (4) 국제 가톨릭 통신사연맹(IFCNA)
- (5) 국제 가톨릭 정보과학기술 교수연맹(ICFTRSTI)
- (6) 국제 가톨릭 신문출판사협회연맹(IFCPA)

국제연맹은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여 왔으나, 1989년 10월 16-22일 서독 루폴딩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 총회(3년마다 개최)에서부터 지역회의의 구성원들도 전문 분야별 국제연맹에 가입, 그 활동을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활성화해오고 있다.

이상의 기본 조직과는 별도로 국제 가톨릭 청년언론인조직(International Network of Young Journalists)이 1987년 10월에 창립되어 60여 개국 400여 명의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다. 35세 이하의 젊은 언론인들로 구성된 이 조직은 상호 발전과 이해를 위한 토론과 교류를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 한국 가톨릭 신문출판인협회(UCIP/Korea : Korean Catholic Union of the Press)

1. 개관

한국 천주교 신문출판인협회는 국제 가톨릭 신문출판인협회의 한국 조직으로서 1977년 6월 18일 창립되었으며, 그 실질적인 사도직 활동을 위해 1987년 8월 19일 재창립되었다. 주교회의 산하 가톨릭 매스컴위원회의 확대개편과 더불어, 그 조정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재창립 회의에서는 국제 가톨릭 신문출판인협회의 정관과 교황청 매스컴위원회 훈령 “일치와 발전”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칙을 개정했다. 이 개정회칙에 따라 신문출판계의 종사자들과 더불어 각 교구 대표(홍보국장)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2. 연혁

1977. 6. 18. 서울 명동성당 사제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한국 가톨릭 신문출판인협회가 발족하였다. 회장에 김병도 신부(당시 가톨릭

출판사 대표), 부회장에 최창섭 교수(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총무에는 표동자 수녀(성마오로출판사)를 선출하였다. 당시 동아시아 신문출판인 협회(EACPA)회장은 김몽은 신부(당시 명동성당 주임)였다.

1987. 8. 19. 재창립 총회를 갖고 회칙개정과 더불어 회장에 이영춘 수사(당시 성마오로 수도회 원장), 부회장 이충우(당시 한국일보사 일간스포츠 문화부장), 총무 강대인(CCK 편집부장), 감사 오지영 신부(가톨릭출판사 사장)를 선출하였다.

1990. 4. 19. CCK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정달영(현 한국일보 주필), 부회장에 이충우(평화신문 편집국장), 총무에는 강대인(CCK 전례부장), 감사로는 이창근 교수(광운대 신문방송학과)를 선출하였다.

1991. 11. 서울 상지회관에서 제1회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12개 단체에서 7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였다.

1992. 9. 브라질 캄포스도 조르당에서 열린 제16차 세계총회에는 오세완 신부, 정달영 주필, 이충우 국장, 김재범 교수, 홍의 부장 등이 참석하였고 정달영 주필은 “Press and Solidarity”란 주제로 기조연설도 하였다.

1992. 10. 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하고 나서 정달영 회장이 재선되었고, 부회장에 최관락(가톨릭출판사 상무), 정대철 교수(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이용수(동아일보)씨 등 3명을 선출하였고, 총무에 이윤자(가톨릭신문 취재국장), 감사에 김재범 교수를 선임하였다.

1992. 11. 서울 한남동 피정의 집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대회 및 제5회 가톨릭 언론대상에서는 신문부문에 정달영(한국일보사 주필), 출판부문에 정한교(분도출판사 편집장)씨가 수상하였다.

1993. 5. 가톨릭 매스컴위원회와 함께 홍보주일 기념 도서전시회 및 세미나를 명동성당에서 개최하였다. 도서전에는 16개사가 참여하여 5월 23일 하루동안 전시하였으며, 세미나는 5월 22일 “교회홍보 매체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문화관에서 가졌다.

1993. 11. 부산 성분도 명상의 집에서 개최된 제2회 전국대회 및 제6회 가톨릭 언론대상에는 부산일보 주필 김상훈씨가 수상하였다.

3. 목적과 활동방향

본협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 1)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를 위해 신문, 출판, 광고분야 전문인의 협력으로 가톨릭 인쇄 저널리즘 발전을 증진시킨다.
- 2) 국내 저널리즘 발전을 위해 교회의 적극참여를 촉진한다.
- 3) 신문, 출판, 광고분야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 있는 미디어 전달자 및 수용자가 되도록 의식 계발에 힘쓴다.
- 4) 가톨릭 저널리즘 발전을 위해 연수, 교육, 연구 활동을 전개한다.
- 5) 신문, 출판 관계 국제 회의 및 국내 조직에 대해 한국 가톨릭 인쇄 저널리즘을 대표한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본협회는 교회의 복음정신을 따르며, 가톨릭 신문, 출판인 국제기구와 유대를 가지고 한국 가톨릭 매스컴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며 각 교구별 조직 및 기타 국내 언론인 조직과 협력한다.

이를 통해 본협회가 지향하는 활동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명실상부한 가톨릭 출판물 발행, 보급 장려.
- 2) 출판인 연수교육 활동.
- 3) 홍보주일 활동의 공동참여.
- 4) 출판회원사 경영인 간담회 주선.
- 5) 교회신문 및 서적보급 협력방안의 모색.
- 6) 각 교구주보 관계자 간담회 주선.
- 7) 일반언론사 회원과 교회내 언론출판인들의 구체적인 협력모색.
- 8) 일반 언론사 회원들의 자율적인 사도직 활동추구.

4. 조직과 운영

본협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 산하에 신문, 출판, 광고 등 3개 분과를 둔다. 본협회의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 및 감사로 구성된다.

총회는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 전체로 구성되며 1년 1회의 정기총

회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소집되는 임시총회로 이루어진다. 총회에서는 본회의 활동계획 및 보고, 신입회원 인준, 회장 및 임원선출, 회칙개정, 예산 및 결산 등 전반적인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및 3개 분과 위원장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적어도 연 4회의 정기모임과 필요시 임시모임을 갖고 총회안건 준비 등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에 회장을 돕는다.

본협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회원의 연회비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5. 회원의 가입

본협회는 그 기본목적에 호응하는 모든 가톨릭 신문, 출판전문인에게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교회의 신문, 출판사업체와 교회 밖 일반 신문, 출판계의 가톨릭 종사자들, 그리고 교회내외의 광고분야 전문인은 단체 또는 개인 자격으로 본협회에 가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입을 적극 권고받고 있다.

* 한국 가톨릭인 신문출판인협회 현황

1) 신문사

한국일보사(31명), 서울신문사(3명), 조선일보사(3명), 중앙일보사(1명), 경향신문사(1명), 국민일보사(1명), 연합통신(1명), 평화신문사(2명), 가톨릭 신문사(1명), 문화일보(1명).

2) 출판사

크리스찬출판사, 성모출판사, 성서와함께, 서광사, 가톨릭대학교출판부, 기쁜소식, 성바오로출판사, 다솜출판사, 성요셉출판사, 가톨릭출판사, 생활성서사, 분도출판사, 천주교중앙협의회, 믿는이의 편지, 황석두 부가 출판사, 제3기획.

3) 대학교

한양대학교(2명), 중앙대학교(1명), 서강대학교(1명).

4) 교구
부산교구

III. 국제 가톨릭 영상인협회(OCIC/world : International
Catholic Organization of the Cinema and Audio-Visuals)

OCIC는 영화, 시청각활동을 하는 가톨릭 교회단체의 국제조직이다. 이는 유럽 6개국이 주축이 되어 1928년에 조직되었다.

1. 목적

1) 예술, 문화, 영화의 발전을 도모한다. 영화제작자나 영화관객의 지적향상에 노력한다.

2) 인간계발과 복음전파에 유익한 영화제작 및 보급에 기여하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 OCIC회원국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며
- OCIC회원 단체에 대한 원조를 실시하며
- 정보, pr, 교육, 문화, 영화의 상호협동으로 인간발전, 선교 등 국제수준에서 활동한다.
- 영화 부문에서 인류에 공헌하기 위하여 영원히 노력한다.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매년 국제회의 및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한국 가톨릭 影像人협회(OCIC/Korea)

1. 약사

1974. 12. 반예문 신부, 모안당 신부, 표동자 수녀, 최창섭 박사, 성

웅제씨가 모여 영상인협회를 창립.

1977. 11. 최창섭 교수, 김봉은 신부, 반예문 신부, 김영숙 수녀, 김중국 신부, 세계총회에 참석.

1981. 11. 최창섭 교수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한 OCIC/Asia 회의에 참가하여 OCIC/Asia 회장으로 당선.

1983. 11. 최창섭 교수, 전표열, 커스틴 신부 등이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UNDA/world 회의에 참가.

1984. 9. 한국 라자로 마을에서 아시아 회의 개최.

1985. 10. 최창섭 교수, 이미림 등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OCIC/Asia 회의에 참가.

1987. 6. 최창섭 교수, 오세완 신부, 이복순 수녀 등이 에쿠아도르 키토에서 열린 OCIC/world회의 참가.

1990. 11. 이 벨라멧다 수녀, 이미림, 김영복, 차연옥 수녀 등이 방콕에서 열린 OCIC/world회의 참가.

1991. 11. 제1회 한국 가톨릭 영상인 전국대회를 12개 단체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상지회관에서 개최.

1992. 9. 정근원 박사가 한국 대표로 스리랑카에서 열린 OCIC/Asia 회의 참가.

1992. 11. 제2회 가톨릭 영상인 전국대회를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교육연구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제1회 영상대상 시상식을 함께 거행하였음. 수상자 : 백남식(한국 가톨릭 사진가협회).

1993. 9. 이미림씨가 방콕에서 열린 OCIC/Asia 회의에 참가.

2. OCIC/Korea의 조직

OCIC/Korea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등 모두 3명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재정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 1명과 OCIC/Korea의 모든 활동을 지도하는 지도신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주요회칙 내용

제1조(명칭) OCIC/Korea는 OCIC의 한국조직이다. OCIC/Korea는 OCIC의 회칙에 기초하여 설립되었으며, 한국 주교회의에 의하여 인가되었다. OCIC/Korea는 OCIC의 아시아조직의 회원국으로서 지역조직의 규약을 준수한다.

제2조(주소) OCIC/Korea의 공식주소는 다음과 같다.

(133-180) 서울시 성동구 능동 85-12 가톨릭 매스컴위원회

제3조(목적)

- (1) 한국 가톨릭교회의 영화와 시청각활동사업을 증진시킨다.
- (2) 한국 영화활동을 위한 사목적 지침을 제공한다.
- (3) 한국의 영화산업에 유능한 그리스도인 인재를 육성한다.
- (4) 양질의 영화에 대한 수상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양질의 제작과 폭넓은 보급을 증진시킨다.
- (5) 부분적으로 영화관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비판적이고 능력있는 영화관객의 확장을 촉진한다.
- (6) 영화 산업계의 활동과 발전상황에 대한 정보를 한국 가톨릭교회에 제공한다.
- (7) 시청각, 영화분야의 국제기구에서 한국 가톨릭교회를 대표하고 아울러 관심사를 알린다.

제4조(회원) 시청각 및 영화관계 연구, 교육, 제작분야에 종사하는 가톨릭교회의 조직체 및 협회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상기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영화 및 시청각분야의 전문가로서 OCIC/Korea의 목적을 구현하고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OCIC/Korea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가입될 수 있다.

제5조(투표) OCIC/Korea 회원은 총회에서 각각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OCIC/Korea는 총회의 투표에 의해서 OCIC의 아시아 지역 기구 및 국제 OCIC회의 참가대표를 결정한다.

제6조(회장단 임무) OCIC/Korea의 임원으로 회장과 부회장, 서기와

회계가 있다. 이들 임원은 총회 때 전회원의 출석하에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그들의 임기는 2년이다.

(1) 회장

- 회장은 OCIC/Korea의 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OCIC/Korea의 모든 활동을 감독 지시한다.
- OCIC/Korea를 대표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그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 책임을 대리할 다른 회원을 지명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한다.
- 회장의 부재시 그의 직무를 대리 수행한다.

(3) 서기의 임무

- OCIC/Korea 회원간 및 OCIC/world와 아시아 지역 OCIC 기구 및 기타 기구와의 접촉과 통신을 유지한다.

(4) 회계의 임무

- OCIC/Korea의 모든 재정을 담당, 기록한다.

제7조(회의) OCIC/Korea의 회의는 적어도 일년에 두 번 이상 개최된다. 새 회원 가입은 총회에 상정되고, 참석자 과반수의 투표로 가능하다. 회칙의 개정은 전회원이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OCIC/Korea 등록협회 현황(91년 자료 참조)

성 베네딕도 수도원 시청각 종교교육 연구회, 광주교구, 원주교구, 살레시오 수도회, 연극인협회, 비디오인협회, 사진가협회, 만화가협회, 성바오로 딸 수도회 성바오로 미디어, 연합광고, 평신도 미디어 교육협회, 성바오로 수도회 다솜 미디어,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센터.*